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韩国语 泛读教程 4

主 编 张光军 吕春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总主编 张光军

韩国语 泛读教程 4

主 编 张光军 吕春燕
编 者 张光军 吕春燕
袁 静 郝一楠
王 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解放军外语音像出版社
洛阳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泛读教程. 4 / 张光军, 吕春燕主编; 张光军等编.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1

综合韩国语教程. 泛读系列

ISBN 978-7-5600-9290-4

I. ①韩… II. ①张… ②吕… III. ①朝鲜语—阅读教学—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0) 第 015757 号

universal tool · unique value · useful source · unanimous choice



悠游外语网
www.2u4u.com.cn

外研社全新推出读者增值服务网站, 独家打造双语互动资源

欢迎你:

- 随时检测个人的外语水平和专项能力
- 在线阅读外语读物、学习外语网络课程
- 在线观看双语视频、名家课堂、外语系列讲座
- 下载外语经典图书、有声读物、学习软件、翻译软件
- 参与社区互动小组, 参加线上各种比赛和联谊活动
- 咨询在线专家, 解决外语学习中的疑难问题

此外, 你还可以通过积累购书积分, 兑换图书、电子书、培训课程和其他增值服务...

你有你“优”, 你的优势就是你的拥有。即刻登录, 抢先体验!

出 版 人: 于春迟

责任编辑: 李晓明

装帧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 址: <http://www.fltrp.com>

印 刷: 北京爱丽龙印刷有限责任公司

开 本: 787×1092 1/16

印 张: 22

版 次: 2010 年 2 月第 1 版 2010 年 2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00-9290-4

定 价: 44.90 元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

联系电话: (010)61207896 电子邮箱: zhijian@fltrp.com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物料号: 192900001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

■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交流的日益频繁，近年来中国国内迅速掀起了韩国语学习的热潮，开设韩国语专业的院校和报考韩国语专业的学生迅猛增加。但由于国内的韩国语教材和教辅资料相对匮乏，给广大韩国语学习者的学习和韩国语教师的授课都带来了很大的困难。为了促进国内韩国语教学的发展，为广大师生提供权威、系统、实用的学习资源，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推出了“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

“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是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系列教材，包含了“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精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等几大系列共三十余册，构成了完备的一体化的教学解决方案。目前已经出版的有“综合韩国语教程 韩国文学作品选读”系列，正在陆续出版的有“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系列。

“综合韩国语教程 韩国语泛读教程”作为“综合韩国语教程”系列教材之一，共四册，涵盖了韩国的政治、经济、文化、文学和社会生活等多方面的内容。本套教材具有如下几大特色：

1. 每三课设为一个单元板块，分门别类、系统地介绍韩国国情文化知识。
2. 练习形式多样，便于学生通过练习加深对课文重点知识的理解。
3. 为授课教师提供练习参考答案及其他相关教辅资料，便于教师备课和授课。相关资料可在外研外语教学网（<http://mlp.fltrp.com>）上下载。

本套教材既适合韩国语专业中、高年级学生使用，同时也适合其他韩国语中、高级阶段的学习者使用。衷心希望本套教材能够帮助大家提高韩国语水平，了解韩国现状，加深对韩国全方位的理解。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9年12月

■ 总 序

随着中韩关系的不断发展，我国韩国语学习者的数量也在不断增加。各种各样的韩国语教材应运而生，呈现出百花齐放、百家争鸣的景象。我们编写的这套“综合韩国语教程”，也必将为这一绚丽的景象增添姹紫嫣红。

“综合韩国语教程”因为其科学性、规范性、系统性、实用性，被评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入选该系列教材的各门课程的教材，都在现实教学中使用过，有些还在比较大的范围内使用了多年，经历了实践的检验。在广泛征求老师和学生们的意见后，编者又进行了相应的修改。因此，这是一套比较成熟的教材。

总主编从事韩国语教学已有 30 余年，编写出版各类韩国语教材近 20 部，发表与韩国语教育相关的论文近百篇，并获得过国家级教学成果奖等各类奖项。参加教材编写的各校老师，都是既有丰富教学经验，又有教材编写经验的骨干教师。此外，该教材还聘请了国内外韩国语学界著名学者担任顾问。因此，这套教材的质量是可信的。

本教程在编写过程中，参考了国内外各类参考资料和大量相关教材，在此，谨对这些资料和教材的作者表示衷心的感谢。

诚挚地敦请各位专家、学者、老师、同学们对教材提出宝贵的意见。希望通过大家的共同努力，使我们的教材日臻完善。

总主编 张光军
2009年6月于古都洛阳

■ 学习与授课提示

泛读课是外语学习中的一门重要课程，一般在大学二、三年级开设。

课程的开设目的：

- 1 学习不同文化背景的对象国国情知识；
- 2 学习一些常用的外语词汇和语法知识；
- 3 培养快速阅读外文语料的能力；
- 4 培养分析问题综合情况的能力。

本教材有以下特点：

- 1 逐步增加课文篇幅，加大阅读量。
- 2 将每三课设为一个单元板块，分门别类、系统地介绍韩国国情文化知识。
- 3 编配必要的词汇、语法注释，并配有例句，为学生吸收语言知识提供便利。
- 4 编配形式多样的习题，以便学生通过练习加深对课文重点知识的理解。

另外，在每课课文之后还设立了一个小栏目——커피숍（咖啡馆），用妙趣横生的语言介绍韩国的小知识，为学生在紧张的学习氛围中添加一点轻松和愉悦。

由于大学一年级主要开设精读课，到二年级精读课还占有相当大的课时比重，因此导致学生比较适应精读课的学习，往往会用学习精读课的方法来学习泛读课。请泛读课的授课教师引导学生改变其学习方法，培养学生从大量外文语料中获取信息的能力。也就是说，不需要像精读课那样字斟句酌地去学习每一个单词的含义，掌握每一条语法的用法，理解每一个句子的意思。

本教材每册编选 15 课，按照每周一次、每次两节的方式授课可以使用一个学期。考试形式可以参考课后的练习题方式。

本教材为授课教师提供练习题参考答案。

编者

目 录

제1과	한국의 정치사	1
제2과	한국의 현대 정치인물과 주요 정당	21
제3과	한국의 정치사건	41
제4과	한국의 대외관계 (1)	66
제5과	한국의 대외관계 (2)	84
제6과	한국의 대외관계 (3)	108
제7과	한국의 과학기술	138
제8과	한국의 경제	157
제9과	한국의 주요 재벌 그룹	179
제10과	한국문학의 흐름(1)	205
제11과	한국문학의 흐름(2)	223
제12과	한국문학의 흐름(3)	241
제13과	한국의 종교(1)	261
제14과	한국의 종교(2)	282
제15과	한국의 종교(3)	301
찾아보기		322



한국의 정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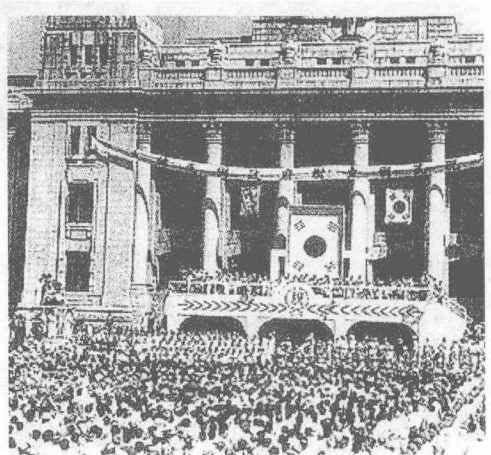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한국의 정치사는 다음 10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공화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共和憲政)체제이다.

1948년 5월 10일 조선반도 남부지역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이승만(李承晩)이 당선되었고,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6·25전쟁을 겪고 난 정부로서는 전후복구라는 시급한 난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당은 전후복구보다는 장기집권에 더 관심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국회의원, 범야 정치지도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들을 감금·협박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치적 비리는 사회적인 도의마저 실추시켜 불법·부정·퇴폐(頹廢)가 난무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항의하는 4·19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2. 제2공화국

1960년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16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되었다.



【제2공화국 출범 경축식】

제2공화국의 잉태기라 할 수 있는 과도정권 하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회정화와 질서확립운동으로 한동안 사회는 오히려 평온하였다. 그러나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당시의 발포 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한 사회여론은 계속 빗발치고 있었다. 한편,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집권당인 민주

당은 신·구파로 양분되어 급기야는 분당(分黨)으로까지 치닫게 되고, 사회는 데모만능시대의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혼란 가운데 제2공화국은 3차례의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수립 9개월 만에 5·16군사정변에 의해 붕괴되었다.

3. 제3공화국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7개월 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 박정희(朴正熙)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후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維新)’ 전일까지 존속된 한국의 세 번째 공화헌정체제이다.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정책, 특히 공업화정책의 추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산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기간(基幹)산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수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1970년 8월 박정희는 남북통일에 관한 새로운 구상으로 ‘8·15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통일에 대비해 국력을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여 헌정을 중단시킨 후 11월 계엄령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4. 제4공화국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되어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네 번째 공화국이다. ‘유신체제’라고도 한다.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개인독재와 영구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극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였다.

1972년 12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4공화국의 통치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제4공화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 1975년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었다.

반면 제4공화국에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19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하였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崔圭하】

비민주적 유신체제는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으로부터 1인 장기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권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의해 국무총리 최규하(崔圭夏)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나 유신체제는 사실상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았다.

5. 제5공화국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9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3월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에서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 정책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안정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외교 분야에서는 1983년 1월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방한하였고, 11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방한하는 등 정상 외교를 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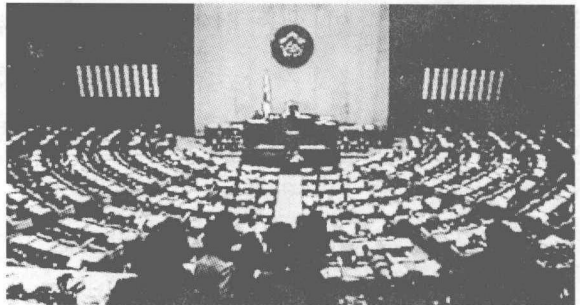
는 한편, 소련·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이 정권은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1987년 일어난 6월항쟁으로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盧泰愚)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6. 제6공화국

1988년 2월 출범한 한국의 여섯 번째 공화국이다.

1987년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88년 2월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4월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제13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제6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제13대 국회개원 모습】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연평균 8.5%의 실질성장률을 이루었으나, 물가상승·부동산투기 등으로 서민층의 불만을 샀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소련·동유럽·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식 수교하였다. 정부는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90년 서울에서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1992년 2월 평양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7. 김영삼(金泳三) 정부

1993년 2월 출범한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끈 정부이다. 문민정부라고도 한다.

한국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32년 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 출신 대통령들이 통치하여 왔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최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국민의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였다.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대 군부정권은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민주적 절차의 무시, 부정부패, 장기집권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1993년 2월 민간인 출신의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비로소 문민정부가 탄생하였다. 김영삼은 ‘신한국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과감하고도 중단 없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비롯하여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행정기구의 축소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2·12사건에 관련된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전역시킴으로써 군의 문민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취한 개혁 작업은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비판을 받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쌀 개방 약속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 결과 군부독재를 대신하는 문민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8. 김대중(金大中) 정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1998년 2월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

를 실현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이다.

1998년 2월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김종필(金鍾泌)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각 각료를 안배해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붙였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업구조조정, 금융개혁, 외환위기 탈출 등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DJ 노믹스’를 표방하고,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내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였다. 그 밖에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정보기술의 활성화,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고질적인 지역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측근 정치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계속 지적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치 개혁과 비리 척결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9. 노무현(盧武鉉) 정부

2002년 12월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2003년 2월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부이다.

대통령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여당이 되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도 부른다.

노무현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였다.

정경유착의 단절(斷絶),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의 성사 등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非正規職)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는 침체되었다. 또, ‘기자실(記者室) 대못질’로 대변되는 언론 정책 등은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10. 이명박(李明博) 정부

2007년 12월 치른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끄는 정부이다. 제6공화국의 5번째 정부이다. 대선시(大選時) 이명박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실용정부’로 불린다.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 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한다. 이 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 주 목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가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와 경제성장, 자원(資源) 외교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 등에 휩싸이며 최저 7.4%의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대운하(大運河) 등의 핵심사업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커피숍

大韩民国临时政府

1910年,日本正式吞并朝鲜,实行最残酷、最野蛮的“武断政治”。1919年1月22日,朝鲜被废国王李熙突然死亡。“国王是被日帝毒死的”传言不胫而走,举国震动。以此为导火线,长期压抑在朝鲜人民心头的怒火终于如岩浆般奔突出来。

1919年3月1日,朝鲜学生和群众在汉城(现译名为首尔)塔洞公园举行大规模反日示威,随即发展为全民族的反日武装起义。“三·一起义”被日本占领军镇压后,大批朝鲜爱国志士流亡到中国,继续从事反日活动。在上海活动的朝鲜各派政治力量经协商,决定成立一个临时政府,以便有组织地抵抗日本的殖民统治,早日光复祖国。1919年4月13日,“大韩民国临时政府”在上海成立,机关设在法租界马浪路(今马当路)普庆里4号,对外称作“高丽侨民事务所”。在第一次临时政府代表会议上,通过了临时宪法,并选举李承晚为临时政府总统。20年代后期金九成为临时政府负责人。抗日战争爆发后,临时政府迁往四川。1945年,日本投降后迁回国。

